

# 코로나19에 감염된 서울경제 살리려 22조 신속집행

방역강화등 3개 분야 15개 사업  
올해 재정 62.5% 상반기 집행  
중소 제품 구매에 2.5조 투입  
코로나19 공공일자리 2700개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DDP패션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우려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재정 35조805억원의 62.5%인 약 22조원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8일 소비·내수 진작, 사업장 방역 강화, 피해 기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경기 활성화 촉진을 위해 상반기에 21조9043억원을 집행한다. 이는 지난해 조기 집행한 15조3787억원에서 6조원 넘게 늘어난 규모다.

시는 시민 접촉 기관인 자치구로 가는 예산을 신속하게 교부해 확대재정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긴급입찰, 선금급 지급 활성화 등 재정 조기 집행을 위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반기에 올해 공공 구매 예산의 60%인 2조5200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쓸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공공 일자리 2700개를 만든다.

일단 전통시장 방역에 1000명을 투입한다. 이들은 시내 350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대대적 방역을 벌여 '안심클린시장'을 조성한다.

2차로 모집할 1700명은 관광업, 소상공 업체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종 종사자 위주로 뽑아 기존의 공

공근로에 추가로 투입한다.

불안함 때문에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시민들을 위해 온라인 배송 서비스 적용 시장을 기존 29개에서 35개로 늘린다.

액면가에서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서울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지금의 2배인 100만원으로 올린다. 적용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4월 말까지다.

상품권은 현재 구매 시에만 제공하는 할인을 사용 시에도 2~5%가량 얹어주는 일종의 '캐시백' 제도를 도입, 실질적 할인율을 최대 15%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한다. 확진자 동선 상 업체 정보 공개로 피해를 봤거나 강제·자가격리로 영업을 일시 중단한 소상공인에게 1%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서울시의 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점심 기준 하루 2500여명이 이용하는 시청사 등의 구내식당 의무 휴업

을 월 1회에서 2~4회로 확대해 인근 식당가의 영업을 돕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면 중소기업·소상공인 박람회, 전통시장 축제 등을 대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서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공동 브랜드 '서울메이드'(SEOULMADE)를 활용, 수출 시장 다변화를 꾀한다.

오는 6월 베트남 하노이에 '서울메이드 스트리트'를 조성하고 판매·전시관과 문화체험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동남아뿐만 아니라 북·남미 지역에도 팝업 스토어 등을 열어 서울메이드를 알리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소비심리가 움츠러들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직면해있다"며 "중앙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조로 방역과 예방에 엄중하게 대처하고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일선 현장에서 민생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문턱 높아 빛 좋은 개살구” 자금 융통 당장 시급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간담회’  
소상공인 “현실적인 도움 필요”  
서울시, 중소기업에 5000억 융자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서울시 등이 내놓는 지원대책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호소했다.

박원순 시장은 18일 중구 DDP패션

몰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간담회’를 열고 기업 대표, 상인, 관련 단체 임원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파리바게뜨 성신여대점 유성원 대표는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이 있어야 하는데,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이미 담보가 잡혀 있어서 보증이 안 된다고 한다”며 “소상공인에게 무슨 담보가 있나. 무담보 대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참가자는 “대출을 해준다기에 상

담을 해봤는데 기존 대출이 없는 사람에게 먼저 대출해준다더라”며 “사실 기존 대출이 있는 사람이 더 돈이 급하다. 정책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노준혁 월드컬처그룹 대표는 “긴급 자금 지원도 다른 대출을 받을 때와 똑 같다. 이런저런 서류와 구비조건이 있어야 한다”며 “현실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박중현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협의회 회장은 “동대문 패션 상권은 매출 40~70%가 감소했다”며 “긴급자금대출 등 대책을 세워준 것은 고맙지만, 상담 일정이 너무 지연된다”고 말했다.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김지영 씨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긴급자금 대출은 빛 좋은 개살구”라며 “문턱이 높다. 자금을 원활하게 융통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했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는 지난 5일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 수요를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간담회 자리에서 시는 소상공인에게 1%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특별 경영안정자금 신설, 신용보증재단 상담 인력 증원, 대출 심사 간소화 등을 발표했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안전기반시설에 1.3조 투입

서울시는 올해 안전·기반시설 분야의 용역과 건설사업에 총 1조3188억원을 투입한다고 18일 밝혔다.

18일 시에 따르면 2020년 안전·기반 시설 분야에 161건의 용역과 101건의 건설공사(10억원 이상)가 계획돼 있다.

올해 발주 예정인 용역은 ▲도로시설·소방·산지 등의 안전분야 78건(216억원) ▲상하수도 등 안전관리 74건(396억원) ▲기반시설 설계 9건(878억원) 등 총 161건이다. 사업비는 1490억원이다.

시가 발주할 건설공사는 ▲도로시설물·교량 유지관리 공사 등의 안전분야 27건(669억원)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보수공사 33건(1341억원)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 38건(9574억원) ▲내진 보수보강 공사 등 기타공사 3건(114억원) 등 총 101건이다. 1조1698억원이 투입된다.

한국은행의 건설 분야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하면 1만4506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된다. 취업유발계수는



서울시청. /손현영 기자

특정 상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10억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상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수다. 2017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건설 취업유발계수는 11명이다.

시는 올해 발주할 용역과 건설공사의 사업내용·발주시기 등 관련 정보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관악구 도림천, 힐링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서울 관악구는 도림천 서울대 앞 구간의 생태복원사업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 구간은 서울대 정문 앞에서 동방1교까지다. 도림천 복원 사업은 2007년부터 진행됐으나, 관악산공원 등산로 입구에 해당하는 이 구간은 미복원 상태여서 관악산과의 생태축이 단절돼 있었다고 관악구는 설명했다.

관악구는 서울시비를 확보해 2022년까지 331억원을 이 사업을 포함한 ‘도림천 특화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생태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 ▲교량 특화사업 ▲관천로 도로 개선을 통한 초록풍경길 조성 ▲관천로 플랫폼 설치 및 운영 ▲생태경관 개선 ▲통수 단면 확장 ▲도림천 정비 및 시설관리 방안 수립 ▲도림천 브랜드화 등이 포함됐다.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조성, 수생식물 식재, 교량 야간조명 설치 등을 통해 도림천을 주민 힐링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관악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정비 완료 후 도림천 모습. /관악구

생태축을 완성한다는 것이 관악구의 구상이다.

관악구는 연말까지 도림천을 지나는 신림교와 신림2교를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리모델링하고 경관조명과 미디어보드를 설치하기로 했다.

구는 상반기에 봉림교부터 우방아파트까지 관천로 구간을 ‘초록풍경길’로 재조성하는 사업을 시작해 연내 완공할 예정이다. 기존 4~6차로를 통행량에 맞게 2개 차로만 남기고 녹색공간을 조성하고 보도 폭을 넓힌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한국에너지재단

### 반지하 맞춤형 집수리 추진

서울시와 한국에너지재단은 반지하 주택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두 기관은 기존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사업’(가구당 120만원 지원)에 한국에너지재단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가구당 200만원 지원)을 결합해 저소득층 반지하 1500가구 이상에 가구당 최대 3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단열 시공, 보일러·에어컨·제습기·창문 가림막 설치 등에 사용된다.

시는 매년 희망의 집수리 지원 대상의 30% 이상을 반지하 주택으로 선정해왔는데 올해는 재단과 협업체 지원 규모를 늘렸다.

시는 올해 400가구 이상, 에너지재단은 1100가구를 지원한다. 양 기관은 수혜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달부터 자치구를 통해 수시로 집수리 지원 신청을 받는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